

니까야서 길을 묻다 9. 오늘날 필요한 계(戒) ③

적게 먹는 것이 불살생

현대 자본주의 시스템의 지배를 받고 있는 우리들의 일상에서 '무소유'라는 불교적 가치는 '이유 있는 소유'를 요구하고 있다고 말하였다. 이는 잘 살고 싶은 바람과 무소유를 지향하는 계(戒)의 정신이 서로 충돌하는 지점을 문제 삼은 것이다. 즉, 경제적 불평등을 원인으로 발생하는 괴로움의 실존적 문제가 크면 클수록 정면으로 껴안아야 하는 오늘 이 시대에 필요한 '계(戒)'의 존재이유일 것이다. 이러한 현실적 상황을 간파하고 내뱉는 소리는 그것이 아무리 고고한 언어로 포장된다 하더라도 진정한 해결책으로 다가갈 수 있을지를 묻는 말이기도 하다.

불살생의 계(戒)를 논하는 지점에서 나올 수 있는 생각들을 다시 점검해보자.

따라서 불교인이라면 결코 육식을 해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그런데 이와 같은 주장은 부처님이 말하고 싶은 계(戒)의 정신에 부합하는 것일까? 그리고 그것이 오늘의 우리에게도 여전히 적용되어야 하는 것일까?

채식을 생각해보자. 채식 역시 내가 살기 위해 식물이라는 생명체 중에서 작은 부분을 뜯어먹는, 그 열매만을 취하던, 그 전부를 먹던, 결과적으로 나를 위해 하나의 생명체를 잡아먹는 행위라는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

또 어떤 이는 식물은 고통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윤회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먹어도 된다고 말하더라. 과연 그럴까? 생명체를 뜯어 먹어도 되는 혹은 죽어도 되는 면죄부가 처음부터 존재할 수 있다는 게 어떻게 부처님 말씀이란 말인가?

<니까야>에서 음식과 관련된 이야기 중에서 자주 접하게 되는 말은 '적절한 식사량 알기'다. 나중에 정학(定學) 즉 '명상' 편에서 자세하게 설명하겠지만, '적절한 식사량 알기'는 명상을 실천하는 현장에서 자주 등장하는 '거리'이다. 그러

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먹어야 하는 실존적 현실을 포기할 수 없다면 최소한의 음식만을 취하려는 자세에서 불살생 계(戒)의 정신을 되살릴 수 있는 지점에 이른다.

내 허를 만족시키는 값싼 음식이나 음료를 찾아 내 것으로 소유하고 싶은 욕망을 자제하는 행위, 다른 이들과 함께 식사할 때 내가 먹고 싶은 음식을 차지하기 위해 다른 이의 바람을 억누르지 않는 행위, 또 이 정도만으로도 되겠지만 더 맛있는 것을 먹으면 좋겠다는 내 속에 들끓고 있는 저 욕망의 움직임을 감지해내는 것이 계(戒)가 가르쳐주는 뒤움의 길일 것이다.

이제 좀 더 본래적인 계(戒)의 정신을 추구하고자 한다면, <니까야>에 나타나는 부처님의 말씀을 더 찾아보아야 할 지점에 이르렀다. 이 말은 부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 출가한 이들이 지켰다고 맹세하는 그것, 곧 출가를 감행하는 이들의 마음가짐에서 보이는 모습, 그리고 이에 대해 안내하고 있는 경전의 서술이 드러내는 의미 영역을 살펴보아야 한다는 말이다.

김준호(불교철학/울산대 연구교수)

그대는 자비보살

박태수 제주국제명상센터 이사장

"명상은 지혜를 얻기 위한 수행입니다. 특히 요즘 같이 존속살인, 아동학대 등 끔찍한 사건사고들이 매일 마스크 헤드라인을 도배하다시피 하는 혼탁한 사회에서는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지혜와 품격을 갖춘 사람이 많아져야 좋은 대한민국, 더 나아가 좋은 글로벌 시대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행착오를 줄이려면 명상하는 방법은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명상은 우리 삶에서 분명 필요할 일부입니다. 매일 10분~20분씩이라도 명상을 해보세요. 분명히 삶에서 큰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올해로 고회를 맞은 박태수 제주대 명예교수(70·제주국제명상센터 이사장)는 명상의 인지도 열풍이 육지보다 다소 떨어지는 제주도내서 명상포교 대중화를 위해 앞장서고 있는 교육자요 상담가이자 명상가이다. 그의 명상 포교 원력은 아직도 현재진행형이다. 지난 2003년 사재를 털어 마련해 놓은 제주시 봉개동에 위치한 현 제주국제명상센터 부지를 센터측에 기부한다. 그리고 2006년 11월 사단법인 제주국제명상센터를 창립해 본격 불사에 돌입한다. 제주를 넘어 국제적인 활동을 해 보자는 취지로 지난 2012년 6월 제주시 안새미 오름 동쪽 기슭에 새롭게 신축, 준공했다.

"명상센터 짓는 일이 혼자였다면 불가능했을 겁니다. 생각은 오래전부터 갖고 있었지만 개인의 조그만 원력으로는 성취하기 힘든 규모의 불사이기 때문이지요. 그래도 명상 대중화에 대한 취지를 알렸더니 주면서 십시일반 동참해주었습니다. 후원자 명단을 입구에 새겨 놓은 것도 개원 당시의 큰 고마움을 전하고 싶었어. 그래서 제가 대표로 이사장을 맡고 있지만 저는 이 분들 모두를 설립자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속내를 들여다보면 박 이사장은 이 센터 건립에 사재의 많은 부분을 할애했다. 대학 교수 퇴직금과 작금 등 수익원이 소모됐으며, 자녀들에게도 설립 취지 목적을 설명하며 1천여 만원씩 보시하도록 독려했다. 교직에서 명예롭게 은퇴하고 남은 여생을 여유롭게 살 수 있었지만, 그는 다소 역경이 있더라도 자신이 세운 명상 포교에 대한 원력을 세우는데 기꺼이 희생했다. 박 이사장은 자신의 마음을 순수하게 이해해 주고 응원해준 가족들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모든 공을 가족들에게 돌렸다.

개원 4년차를 맞은 제주국제명상센터는 매주·일요일 명상프로그램을 만들어 걷기명상(위빠사나)·좌선명상(사마타), 샷상요가(주체명상) 그리고 참가자를 대상으로 집단상담을 한다. 또한 매주 수·목요일에는 무경계·깨어있는 삶을 위한 일곱가지 가르침 교재를 갖고 명상스터디를 무료로 진행한다. 이뿐만이 아니다. 1999년부터 인연이 닿은 붓다락기파 스님(경기도 보리수선원 선원장)도 초청해 '명상 지도자를 위한 위빠사나 수행 프로그램'을 매년 4월과 10월 두차례 운영하는데 인격 집중 수행프로그램

명상 포교 불교미래 희망 佛事



박태수 이사장은... 1968년 안동교육대학 졸업 후 초등학교 교사를 지냈다. 1974년에는 다시 중앙대 사범대학 교육학과에 편입했고 졸업 후에는 고등학교 교사를 지냈다. 1977년 중앙대 사범대학 교육문제연구소 조교, 1978년부터 1988년까지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원 및 책임연구원, 1988년부터 2013년까지 제주대 학생생활연구소 상담부장, 전임강사, 조교수, 교수 등을 역임했다. 1999년에는 제주불다중앙클럽 총회장을 맡기도 했다. 이후 제주도 청소년육성위원회 위원, 제주도 청소년 종합상황실 실장, 제주대학교 상담 및 봉사센터 소장 등을 역임했고, 현재는 제주대 명예교수와 제주국제명상센터 이사장으로 재직중이다.

체험을 통해 자신의 동작을 알아차리고 참된 행동으로 인도하고 있다. 제주국제명상센터는 △명상지도자 과정 △집중명상을 통한 학습력 및 생활습관 향상 프로그램 △열린명상 교실 △여행과 명상체험 △명상사와의 만남 △직업전문성 함양 연수를 비롯해 1·2급 전문상담사 인턴과정, 중독예방상담원 등 상담관련 전문가를 양성하는 전문 명상 센터의 전초기지라고 되고 있다.

박 이사장은 이후 잠깐 종교적 의도(?)를 하기도 했다. 교육대를 졸업한 후 초등학교 시절, 뜻 밖에도 하숙집 주인이 바로 교회 집사님이었다. 박 이사장은 그의 집요한 권유로 교회에 나가게 됐고 그 안에서 뜻밖의 사랑도 싹텄다. 급기야 교회 청년회장직도 제안 받았다.

"새벽기도를 나갔는데 앞줄에 앉은 아주머니가 오열 하며 기도하시더군요. 나 역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 하는데 가슴에서 아주머니처럼 감흥과 종교적 신심이 일어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믿음이 적어서 그런가' 라는 회의가 들기 시작했죠."

그런 일이 있던 후 조금씩 교회가 나가는 횟수가 눈에 띄게 적어졌다. 마침내 박 이사장은 1974년 중앙대 사범대학 교육학과에 편입을 하면서 종교 활동에 시간을 할애할 수 없는 환경이 됐다. 종교적 믿음 보다는 더 큰 꿈을 위해 석사학위(1980년), 박사학위(1990년)를 취득하며 쉽지가 않았던 달린 것이다.

이런 박 이사장이 불연과 다시 인연을 맺은 것은 제 2의 고향이 된 불국(佛國)의 섬 제주도였다. 1988년 마흔살이던 때 제주대 학생생활연구소 상담부장으로 내도한 것이다. "제주대에 부임하고 그해 6월 혼자서 한라산 등반을 했어요. 산을 오르다가 자연스럽게 이야기가 오고 간 분이 있었는데 비구니 스님이었죠. 정성까지 같이 등반했고, 인연이 되려고 그랬는지 하산 한 뒤에 스님이 머물고 계신 불광사(서귀포시 남원읍 하례리)에서 공양을 듣게 됐어요. 오랜만에 사찰에 오니 유년시절의 기억도 새록새록 되살아 나고 마음이 평안해 지더군요. 제가 재발심하게 된 계기였습니다."

성종사 대만최대 규모 범종 제작 수출

세계로 수출되는 성종사 범종! 우리의 자랑스런 불교문화유산입니다

최근 세계적인 범종 제작회사로 거듭나고 있는 성종사가 대만 최대 규모인 8,800관(33 ton) 범종을 제작 수출하였다. 높이 4.82m, 직경 2.89m 중량 33ton(3800관)의 이 초대형 범종은 대만 타이중에 위치한 명선사(明善寺)라는 사찰로부터 2013년 주문 받은 것으로 기존 대만 최대 범종인 25.5ton의 불광산사 범종보다 무려 7.5ton이 무거우며 높이도 50cm나 더 크다.

본 범종의 제작기간은 약 18개월이 소요되었으며, 종 표면에는 12,129자의 경전과 명선사의 역대 禪師 70명이 정교하게 빼곡히 새겨져 있어 보는 이로 하여금 감탄을 자아내게 한다.

성종사의 범종은 대만, 중국, 일본, 싱가포르, 홍콩, 베트남, 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 전세계 불교권 국가로 수출되고 있습니다



전시관 :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43 TEL 02-733-6141 / FAX 02-733-4840
 사이트 : www.sungjonga.co.kr / E-MAIL : sungjonga@hotmail.com
 공 장 : 충북 진천군 덕산면 합목리 406-28 TEL 043-536-2581 / FAX 043-536-2582
 대 표 : 범산 원 광 식 (중요무형문화재 제112호 · 대한민국 명장)



...“삶의 지혜 보폭 넓히는 일”



박태수 제주국제명상센터 이사장(사진 가운데)이 2012년 6월 제주국제명상센터 개원식에서 테이프 커팅을 하고 있다.

그리고 박 이사장은 스님이 운영하는 3박 4일 단식 프로그램에 함께 참여했다. 그곳서 마추대하 5명 규모의 법당. 그 앞에 펼쳐진 잔디밭. 그리고 분재처럼 잘 자란 소나무 몇 그루 사이로 들려오는 파도소리 등등. 그 풍경과 분위기는 속세의 찌든 삶에 젖어 있던 박 이사장의 마음을 단숨에 사로잡았다.

“너무 좋았어요. 이런 극락같은 세계가 있다는 사실에 그 흥분이 가시질 않았죠. 바쁘게 생활한 내 몸과 마음이 단숨에 맑아지는 느낌을 받았어요. 과거 개신교서 열심히 활동해도 느끼지 못한 그 감동과 신심을 찾은 거 같았어요.”

그 해 9월 비구니 스님이 떠나고 다시 그 불광사에 비구 스님이 주석했는데, 철저히 수행중심으로 재가 불자들을 포교하는 스님이었다. 2박 3일 동안 그 스님과의 수행이 박 이사장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 놓았다.

“명에도 재물도 모두 놓아도 하나도 후회되지 않을 만큼 행복한 체험을 하게 됐습니다. 또한 그 어릴 적 할머니를 따라 절에 갔던 그 포근함과 편안함이 다시금 느껴졌지요. 당시 저를 제주대로 이끌어 준 선배 교수가 교회에 함께 나가자는 제의조차도 단박에 거절할 정도로 다시 불교에 심취하기 시작했습니다. 본격적인 불자로서 거듭나기 위한 출발 선상에서 있던 순간이었습니다.”

사실 그동안 박 이사장은 제주대 내에서 개인상담과 집단상담, 심리검사 등 상담 강의를 하고 내담자를 만나면서도 상담자로서의 만족감을 갖지 못했다. 그 뿐 아니라 상담 후 내담자의 변화도 지속적이지 않음을 깨달았다. 분석결과 그 원인이 상담이라는 의식적인 노력으로는 개인 문제를 본질적으로 해결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몸과 마음, 영혼이라는 인간 존재에 대해 근본적 이해를 하지 않고는 정신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내담자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다. 그러던 중 박 이사장은 명상에 본격적으로 빠져 들게 한 큰 스승과 수행법을 만난다. 1990년 경타 스님의 동사섭(同事攝)이다. 그는 이 수행법을 경험하며 내면세계

1990년 ‘동사섭’ 체험, 명상포교 원력 세우
1999년 (사)분다클럽 제 8대 총회장 역임
2012년 제주시에 국제명상센터 개원
명상전문가 양성... 전문센터 전초기지

에 눈을 뜨게 되었다.

“1990년 추운 겨울 ‘동사섭’ 수행 체험을 위해 지리산 백장암에 갔는데 그 화장실이 바로 노천에 있었어요. 두 사람이 동시에 들어가면 엉덩이만 가릴 수 있도록 영성 했지요. 숨소리, 힘쓰는 소리 등 웅변 보는 미세한 소리까지 모두 듣거나 볼 수 있는 어지간한 비위로는 견디기 힘든 장소였지요. 그런데 어느 날 아침, 화장실에 저를 지도해 주시는 스님이 옆에 들어오신 겁니다. 당황해 하는데 스님이 옆 칸에 앉으시며 ‘우리 화장실 동사섭이나 할까요?’ 하시더라고요. 처음에는 어색 했지만 그 안에서 ‘날씨 이야기’ ‘동사섭 프로그램 이야기’ 등을 나눴죠.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만약에 아는 분과 화장실서 만난다면 피할 수 없는 삶의 중요한 순간이 될 것이고, 그 짧은 순간도 참 만남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이지요. 어느 장소에서 만나더라도 서로 어색하게 지나칠 것이 아니라 반갑게 웃으면서 ‘안녕하세요. 요즘 날씨가 고르지 못한데 건강은 어떠세요?’라며 따뜻하게 마음을 나누는다면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순간을 창조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감동적인 체험들을 제주도에 전파하겠다는 원을 세웠습니다.”

박 이사장은 이후 제주불교계의 신행활동에 전념한다. 제주불교계에서도 당시 남성불교의 표상이 된 사단법인 분다클럽에서 1992년 창립멤버로 꾸준히 활동하다가 1999년 제 8대 총회장을 맡았다. 특히 분다클럽은 산하에 7개 지회를 거느린 제주도에 최대 신행단체로 부너회원까지 1천 여명이 활동중이다. 회장을 맡으며 박 이사장은 제주불교의 신행포교 수



1992년 2월 백장암서 기념촬영을 한 박 이사장(맨 왼쪽).



2002년 인도 비하르대학서 찍은 사진(맨 오른쪽).

준을 몇단계 끌어 올려 놓았다는 좋은 평가를 받았다. 이러한 대외활동 못지 않게 박 이사장은 개인 수행에도 게을리 하지 않았다.

1990년대 마음 프로그램을 만나면서 인도요가의 대가인 문진희 선생 도움으로 방향 때마다 결망지고 만행을 떠났다. 인도를 제집 드나들 듯이 다니며 요가명상에 푹 빠졌다. 결국 박 이사장은 2005년 사고(?)를 친다. 머리를 삭발하고 인도 비하르 요가대학 요가지도 자격과정(6개월)에 입문한다. 박 이사장의 수행과정은 철저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요가 명상에 전념했다. 흔히 화두법에서 말하는 행주좌와 어묵동정(行住坐臥 語默動靜) 모두가 요가서도 수행의 한 방편 역할을 했다.

“손가락을 파이퍼처럼 오므려 보세요. 그 손가락 구멍을 통해 앞에 주전자를 보면 주전자의 몸통밖에 보이지 않죠. 하지만 두 손으로 큰 구멍을 만들면 어떻게 됩니까? 그 구멍이 넓어지자 주전자 전체가 보이듯이 이처럼 이해의 폭이 넓어진다는 겁니다. 명상도, 수행도 삶의 이해의 보폭을 넓혀가는 겁니다.”

박 이사장은 명상 수행을 하면 머리로만 알던 것을 자각하게 된다고 적극 권한다. 책을 10권 읽더라도 머릿속 기억은 금세 잊어버릴 수 있지만 몸으로 자각한 프로그램은 체형으로 이해하기에 깊은 통찰력이 생긴다는 이다.

박 이사장은 영어로 된 시험에 당당히 합격하고 인도 비하르 요가대학서 요가 지도자 자격증도 받았다. “자격증 받던날 요가원서 가만히 앉아 명상에 드니 제 나이 예순이었어요. 내 나이를 다 살았네. 예순까지는 내가 갖고 온 나이이고 이제부터 남은 나이는 남을 위해 살아야 하지 않겠냐”는 생각이 일어나더군요. 나만을 위한 이기심으로 남은 생을 살 순 없지 않느냐는 것이었어요. 그럼 남을 위해 어떻게 살 것인가 고민했죠. 결국 내가 살아온 삶 속에 익힌 교육학과 상담, 명상으로 재능기부하며 회향하겠다는 결론을 얻었죠. 남은 생까지 제주국제명상센터를 지키려는 큰 이유죠.”

김주일 기자 · 이병철 제주불교신문 기자

전법일기

“때에 맞춰 먹으라”

“때를 거르지 마라.” 흔히 멀리 있는 자식에게 부모들이 당부하는 말이다. 끼니를 거르지 말라는 것이다. 아침점심저녁 제때 밥을 먹어야 몸의 순환과 기운을 잃지 않는다. 그래야 공부도 잘하고 일도 잘하고 다른 사람과도 잘 지낼 수 있다. ‘잘한다’는 ‘집중한다’는 뜻이다. 몸의 에너지가 잘 돌면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고 말과 행동이 부드러워진다. 하는 일마다 술술 잘 풀린다고 느껴질 때야말로 몸과 마음이 가장 편안한 상태가 아닌가.

경전에는 아침점심저녁에 먹어야 할 음식이 다르고, 계절과 절기마다 먹어야 할 음식을 조절하라고 쓰여 있다. 또 아침은 몸이 깨어나는 시간이니 죽과 같은 맑은

모에 사투리가 정겨운 분이었다. 그분은 젊어서 고생은 했지만 지금은 남편의 사업이 자리를 잡았다 했고, 딸 둘 아들 하나인데 세 자녀 모두 명문대를 졸업했다. 게다가 요즘 아이들답지 않게 성품이 온순하고 예의가 발라 부러움을 많이 받는단다.

“스님, 강의 있는 날에는 새벽에 남편이 터미널까지 데려다주고 집에 들어올 때는 택시를 보냅니다. 참 다정한 사람이예요. 아들은 제가 선재 스님 강의 듣는다고 얼마나 좋아하는지요. 유명한 스님이니 엄마 아픈 데 좋은 음식을 알려주실 거라고 해요.”

그분은 특별한 원인 없이 20여 년 넘게 몸 이곳저곳이 아픈 환자였다. 얼마나 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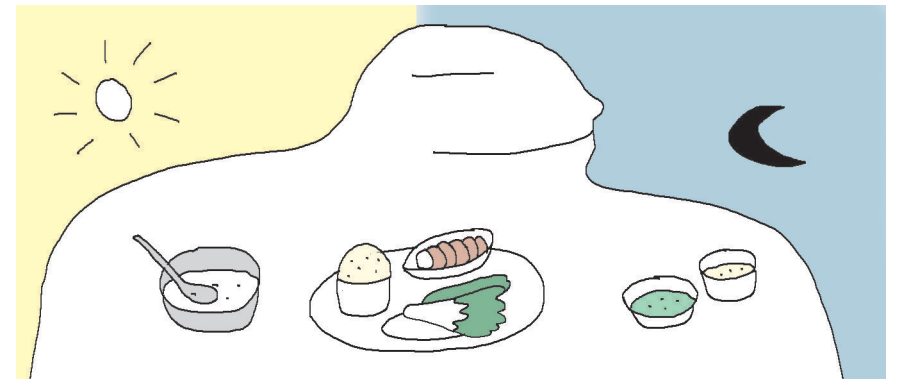


그림 · 박구원

음식을 먹고, 점심은 활동량에 따라 칼로리가 높은 음식을 충분히 먹고, 저녁은 위에 부담이 될 가도록 가볍게 먹어야 한다고 했다.

때를 알고, 때에 맞게 먹고, 때를 따르는 것은 자연의 운물에 맞춰 살아간다는 뜻이다. 세월이 흐른 지금도 나는 어릴 때 “때를 거르지 마라”고 하신 어머니의 목소리를 듣는다. 또 부처님 법을 배우면서 그 말이 얼마나 지혜롭고 귀한지 깨달았다. “때에 맞춰 먹으라”는 뜻은 “지금 이 순간을 살라”는 부처님의 가르침과 닿아 있다. 때마다 먹는 음식의 에너지가 우리 몸에 차곡차곡 쌓이듯, 순간순간이 모여 일생을 이룬다. 때 순간 ‘나는 지금 이렇게 살고 있구나’, 자각해야 진정한 기쁨과 행복을 느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사찰음식 강의에는 멀리 지방에서 오는 분들이 꽤 있다. 새벽 고속버스를 타고 올라와 고작 2시간 강의를 듣고, 온 길을 거슬러 가면 밤이 이슬해서야 집에 도착한다. 그렇게 1주일에 한 번 1년여, 쉽지 않은 여정이다. 하루는 수업을 마치고 멀리 남쪽 끝에서 강의를 들으러 오는 분과 우연히 동행을 하게 되었다. 수더분한 의

론, 전국의 이름난 의사, 한의사는 다 찾아다니며 좋다는 약은 다 먹었고, 심지어 무속인까지 찾아갔다. 결국 음식에서 답을 찾을 수 있을까, 해서 나의 강의를 듣기 시작했다. 처음 강의실을 찾을 때는 너무 힘들어 보여 먼 거리를 어떻게 다닐까. 걱정스러울 정도였는데, 지금은 한눈에도 안색이 좋아지고 몸놀림도 가벼워 보였다.

“스님, 세상이 다 주지는 않나 봐요. 제가 아픈 것만 빼면 참 완벽한 삶인데요.”

“네. 그러네요. 하지만 내가 보기에 보살님은 다 가졌네요. 성실한 남편과 착하고 똑똑한 자녀들. 모두 아내와 얼마의 몸이 건강해지도록 애를 쓰고, 또 보살님은 거기에 행복함을 느끼잖아요. 어쩌면 아파서 행복한 거죠.”

내 말에 그분은 환하게 웃었다. 불행과 행복은 따로 있지 않다. 불행은 지금 이 순간을 살지 못하는 데 있으며, 지금 이 순간에 우리가 보고 느끼고 듣고 맛봐야 할 것들을 충분히 누리는데 행복이 있다. <끝>

선재 스님(선재사찰음식문화연구원장)



대한불교조계종 제9교구 본사
팔공총림 동화사 주지 능담 효광 종사 진산식
대구불교총연합회 회장 취임식

팔공총림 동화사 住持(주지) 能潭 曉曠(능담 효광) 宗師(종사)의 晉山式(진산식) 및 대구불교총연합회 회장 취임식을 다음과 같이 奉行(봉행)하고자 합니다.

이 새봄에 이 인연으로 천하 총림에 禪花(선화)가 만발하여 娑婆昏衢(사바혼구)의 등불이 되어 나라가 太平(태평)하고 세상이 淨土(정토)가 되기를 빌면서 四部大衆(사부대중) 여러 尊體(존체)님을 如法(여법)히 모시고자 하오니 무루 參禮(참례)하시어 이 법회를 더욱 빛내 주시기 仰望(양망) 하옵시다.

나무 석가모니불

법회 세부 일정

- ◆ 일시 : 불기 2560년(2016) 3월 30일 오전 11시
- ◆ 장소 : 동화사 통일약사대불 앞 특설무대
- ◆ 문의 : 종무소 (053)980-7900

☺ 대한불교조계종 제9교구 본사
팔공총림 동화사 주지 진산식 봉행위원회

언제 어디서나 부처님을 모시고 법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당은 물론 옥외 법회 및 방생법회

장엄괘불

편리하게 휴대가 가능하고
 손쉽게 조립하며 가방에 담아
 보관할 수 있습니다

장엄괘불

- 괘불 크기 : 가로 200cm × 세로 300cm
- 구성 품 : 휴대용 가방(괘불+설치물+설명서)
- 구입가격 : 56만원 (주문 → 입금 → 배송)
- 배 송 : 입금 후 5일내 배송 가능

판 매 처

- 구입문의 : 현불샵 02)2004-8214
- 입금계좌 :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